

2월 추천도서, 습관의 말들 등 7종

출판진흥원 책나눔위원회 선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책나눔위원회'는 2월 추천도서로 ▲습관의 말들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건축의 발명 ▲다른 시간, 다른 배려 ▲물질의 물리학 ▲도토리랑 콩콩 ▲스러져간 백제의 합성 등 7종을 선정했다.

'습관의 말들'은 방송 일과 편집 일을 병행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유익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분투해 온 편집자의 에세이다.

밀줄 그으며 읽은 책, 치열하고 톡이본 원고, 스크랩해 둔 강연, 새벽 빗길을 뚫고 달려가 감상한 영화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준 단단한 문장들을 기록한 책이다.

책나눔위원회 위원인 송현경 내일신문 기자는 "'습관의 말들'은 습관과 관련된 100개의 문장과 각 문장에 얽힌 저자의 생각들을 풀어 놓는다. 프리랜서인 저자는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고 때론 오전에 날이 밝아야 잠이 든다. 저자는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돌아보며 적절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습관은 곧 삶에 대한 태도이자 정체성이기도 하다. 행동들이 모여 일상이 구성되고 삶이 형성되는 까닭이다. 자신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습관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전했다.

'해방촌의 채식주의자'의 저자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트머스대학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 전법선이다.

저자의 앞날은 누가 봐도 창창했지만 저자는 자신의 삶이 남의 눈치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



책나눔위원회의 2월 추천도서.

(사진=왼쪽부터 유유·한겨레출판사·MID 제공)

고 있다. 밴드 '인본들' 보컬이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노래상을 받았다. 이후 성균관대 앞 서점 풀무질을 인수해 대표로서도, 출판사 '두루미'의 발행인으로서도 살고 있다.

인문학자 김경진 전 교수는 "치열한 경쟁사회인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양반답게 살고 싶어하는 이 청년이 던지는 실존적 성찰은 제법 묵직하고 예리하며 균형도 갖췄다. '멋진 물고기' 같은 청년 전법선을 응원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추천했다.

'건축의 발명'은 건축물에 숨겨진 인류의 발명품들을 주목하며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 책이다. 디자인이나 특별한 건축 철학, 기술 등이 아닌 계단, 벽돌, 문, 경첩, 못, 망치 등 작지만 위대한 18가지 발명에 주목했다.

이준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의식 주 중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종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건물과 공간의 설계에 관한 구조적,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접근은 물론 정리정돈 같은 건물과 공간의 관리까지, 영역도 다채롭다. 하지만 '의식'과 비교해 여전히 '주' 영역의 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책은 주류 콘텐츠에서 다소 벗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것이 이 책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책나눔위원회는 출판수요 확대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월 ▲문학 ▲인문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실용 ▲아동·그림책 ▲청소년 등 분야별로 총 7종을 추천한다.

추천도서는 출판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독서정보종합포털 독서인(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제1회 온라인 음악 취·창업캠프 개최

전주대 음악학과, 4일까지 특강·학생 개인별 상담·멘토링 등 진행

전주대 음악학과(학과장 김대욱)는 2일부터 4일까지 제1회 '온라인 음악 취·창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음악 취·창업 캠프'는 음악 분야 취·창업 교육을 방학 기간에도 진로별 심층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박 3일 동안 학생들의 관심 진출 분야인 전문 음악학원 및 연습실 창업, 음악회 기획, 실용음악 교육, 악기 제작과 수리, 뮤지컬 음악, 공연예술대학 진학 등의 업계 상황과 전망, 성공전략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전주대 음악학과는 2일부터 4일까지 제1회 '온라인 음악 취·창업캠프'를 개최한다.

분야별 맞춤형 공약을 위해 김은찬 뮤지컬 음악감독, 황성수 아시아예술협회장 등 업계 전문가 10명이 강사로 나선다. 강사들은 특강 분야 전반에 대해 교육하고 학생 개인별 상담 및 멘토링도 진행한다.

특히 온라인 특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다양한 기법의 영상 콘텐츠와 교육자료들이 특강에 적용되고,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수강료를 제출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학기 중에 '음악창업'이라는 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돕고 있지만, 추가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방학 중에도 캠프를 진행한다"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구하고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해 꿈을 이루시길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tv" 서 매주 공연 만나요

시립국악단, 판소리·민요·민속음악·퓨전국악·무용 등 공연 유튜브 송출

남원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공연을 접할 수 없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를 위해 대면공연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매주 30분 분량의 공연물을 영상으로 제작해 남원시tv를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tv의 기억독주 모습.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공연물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봄부터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예촌, 혼불문학관, 서도역, 김병중미술관, 만복사지, 가야고분군 등 남원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지에서 공연촬영을 통해 인방에서도 전통예술공연을 감상하고, 남원의 수려한 경관의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맞는 공연문화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판소리, 민요, 민속음악, 퓨전국악, 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 1회 30분 분량의 공연물을 1주일 단위로 제작해 송출하며, 첫 방송은 2월 1일 유튜브 채널 '남원시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번 공연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해 한옥지원활동 야간상설공연인 '시리럼 실경 토티야'를 새롭게 개관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공연하여 관객들에게 흥과 신명을 선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공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

켰다. 남원시립국악단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밤,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펼쳐지는 창극 '열녀춘향수절가'와 매주 금요일 밤 '광한루원의 밤' 등 매주 수요일 오후 광한루원 안숙선 명창 '전통소리청' 마을단위 찾아가는 공연 '정자나무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물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보류되었던 어린이 국악단 창단도 코로나19의 수위를 살펴가며 재개, 지역의 국악청소년들의 심화교육을 통한 공연기회 제공 및 국악꿈나무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표 속 태권도의 흔적을 찾아서' 특별 전시

국립태권도박물관, 28일까지 태권도 주제 우표 300여 점

국립태권도박물관(관장 이난영)은 올림픽 관련 태권도 우표와 북한 및 국제스포츠 경기 태권도 우표 등 '우표 속 태권도의 흔적을 찾아

서'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 전시는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우표들 가운데 태권도 주제 우표 300여 점을 선



우표 속 태권도의 흔적을 찾아서

보이며 오는 28일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300여 점 가운데에는 핀란드의 미교 사범이 기증 한 서울 올림픽, 시드니 올림픽 등 올림픽 개최 도시 우표 86점도 만날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인, 우표 수집가 등 국립태권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특별 전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태권도 박물관 누리집' 특별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난영 국립태권도박물관장은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우표, 북한 태권도 우표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표를 만날 수 있다"며 "태권도와 관련된 작은 소장품이나 자료라도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해 주시면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 태권도인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문 업체 및 자체 정기 방역과 박물관 내부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 자주 접촉하는 부위에 대해 일일 단위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7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1년 2월 16일(화)~17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 ▶ 주최 - 전주매일 신문
- ▶ 주관 - 전라북도 스키협회
- ▶ 후원 -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 ▶ 대회 신청 문의 - 063)288-9700 (전주매일 본사)